

燕京圖書館本 韓國古小說에 관한 일연구

李相澤

I. 예비적 검토

하바드 대학교 燕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소설 자료를 수집 복사해 온지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료에 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제 그 보고서의 일부를 내어 놓게 되었다.

현재 연경도서관에는 약 40여종¹⁾의 한국 고소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유일본을 포함한 稀貴本도 여러 편이 눈에 뜨인다. 예컨대 「金允傳」, 「閔時榮傳」, 「宋婦人傳」, 「玉蘭奇緣」, 「劉生傳」, 「中山望月傳」, 「昌蘭好緣」, 「花門孝行錄」, 「華山重逢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유일본이거나 또는 설사 국내에 同種의 異本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판이하거나 善本에 해당하는 稀貴本들이다.

이 밖에도 연경도서관에는 老尊本 「九雲夢」이 稀貴本室에 소장되어 있고²⁾, 「古烈女傳」(한글필사본), 「삼국지연의」(한글필사본), 「수호지」(한글필사본), 「樂毅田單傳」(李圭瑢이 廣益書館에서 간행한 구활자본) 등과 같은 중국소설 국역본도 소장되어 있다.

또 하바드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해당되는 와이드너圖書館에는 소련 과학원에서 간행한 다음과 같은 한국 고소설의 복사본이 보관되어 있기

1) 이 중에는 동일작품 이본도 포함되어 있음.

2) 九雲夢 老尊本에 관해서는 丁奎福 교수가 이루어 놓은 일련의 성과가 주목에 값한다.

도 하다.³⁾

雙釧奇逢 권지일

한글필사본 59장, 동양제민족고서적 소총서 제 15호, 동양서적출판사
모쓰크바, 1962.

崔忠傳

한글필사본 43장, 동방문학총서 제 18호, 〈나우까〉출판사, 모쓰크바,
1971.

춘향전 권지단

한글방각본 30장, 동방문학총서 제 19호, 〈나우까〉출판사, 모쓰크바,
1968.

님 장군전 권지단

한글방각본 27장, 동방문학총서 제 48호, 〈나우까〉출판사, 모쓰크바,
1975.

또 연경도서관에는 북한에서 해제를 붙이고 윤색을 가하여 현대 활자
본으로 간행한 고전소설 약 20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홍부전

윤세평 주석 및 해제, 국립출판사, 1954.

심청전

윤세평 주석 및 해제(회동서관본) 심청전을 대본으로 하였음.

토끼전, 장끼전(동일본에 수록)

김삼불 주석 및 해제(중앙인서관판)을 대본으로 하였음.

운영전

한진식 역, 김하명 해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숙향전

정학모 주석 및 해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창선감의록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주석 및 해제 담당자는 기재되지 않

3) O.P. Petrova의 「*Opisanie pis'mennykh pamiatnikov koreiskoi kul'tury*」
(한국문화에 있어 문서 기록에 대한 기술)에는 소련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소설 목록 40여 종이 수록되어 있다.

'았음).

홍길동전

조은우 윤색, 편집부해제, 문예출판사, 1981.

장화홍련전

신진순 윤색, 편집부 해제, 문예출판사, 1981.

양반전

조령 출 윤색, 편집부 해제, 문예출판사, 1981.

리춘풍전, 옥단춘전, 옥랑자전(동일본에 수록)

김하명 해제, 김홍량 윤색, 문예출판사, 1985.

쌍천기봉(상)

오희복 윤색 및 해제, 문예출판사, 1983.

사성기봉(상)

조선문학창작사 고전문학연구실 해제 및 윤색, 문예출판사, 1983.

황백호전, 황월선전(동일본에 수록)

조선고전문학선집 22, 문예출판사, 1987.

연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바드대학교에 수록되어 있는, 따라서 국내에서 쉽사리 구득하기가 어려운 일련의 고전소설 관계자료의 실태를 총괄적으로 조사 정리하고, 각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완수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으로서 본고가 마련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연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전소설 原典資料⁴⁾의 목록 및 書誌狀況을 종합적으로 검토·소개하고, 이어서 稀貴本에 대한 개별적 연구사례로서 「華山重逢記」 및 「宋婦人傳」에 관한 연구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일차 작업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Ⅱ. 연경도서관본 고소설 목록 및 서지상황

金山寺創業實錄

1권 1책, 31.2cm×20.0cm, 도합 73장, 매면 10행, 매행 21~24자의 필사본 한글 소설.

4) 여기서 '原典資料'라 함은 현대적인 윤색이나 주석을 가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과 같은 二次資料가 아닌, 필사본 또는 방각본 原資料를 뜻한다.

金圓傳

1권 1책, 31.0cm×19.8cm, 도합 45장, 매면 10행, 대행 21~23자의 한글 필사본. 작품 말미에 “갑오이월등서우수란산중 노라”하여 필사간 기와 필사 장소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金允傳

6권 6책, 33.7cm×21.6cm, 제 1 권 38장, 제 2 권 39장, 제 3 권 35장, 제 4 권 47장, 제 5 권 46장, 제 6 권 31장으로 도합 236장이며, 매면 11~13행, 대행 17~18자가 기재된 한글 필사본. 각권 말미에 다음과 같은 필사 간기와 책주인 등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제 1 권 : 金允傳 初卷終 此冊主人東門外紙店

무론모인호고초직률갖다가보신후속속히보니죽기한두상에흔을얻고 고더흐웁니다.

초직에다가욕설을쓰거나잡설을쓰는폐단이유허면벌금을걸수세오니나초하양후 경이보시고보니쇼서

大韓光武六年西月七日謄出

제 2 권 : 동문외 광신호지연 닉칙

東門外廣信號紙塵宅冊

壬寅 月 四日竟出

제 3 권 : 歲在癸卯一日二十四日爲始二十八日竟出

김윤전 편지 속 廣信號紙塵宅冊

제 4 권 : 癸卯仲春一日爲始四日竟出

東門外廣信號紙塵宅

제 5 권 : 歲在癸卯仲春旬日爲始三日竟

東門外廣信號紙店

제 6 권 : 歲在癸卯仲春十日爲始十七日竟

東門外廣信號紙塵宅冊

南征記

2권 2책, 20.7cm×15.9cm, 上卷 80면 下卷 80면으로 도합 80장의 漢文 筆寫本. 매면 10행 대행 20자의 정확한 규격을 지키고 있음.

南征記

1권 1책, 漢文 筆寫本. 도합 96장이고, 매면 10행 대행 18~23자가

기재되어 있음.

牧忠好傳

표지에는 『牧忠孝傳』으로, 内紙에는 『목시룡형제충효전』으로 기재되어 있음. 1권 1책, 21.9cm×19.6cm, 도합 36장, 매면 12행, 매행 23~27자가 기재된 한글 필사본. 작품 말미에 ‘평양기 홍도 낭군전 상서’가 3면에 걸쳐 27행이 첨가되어 있음.

閔時榮傳

1권 1책, 21.7cm×19.3cm, 도합 42장, 매면 12행 매행 23~26자가 기재된 한글 필사본. 표지에는 ‘己亥臘月初五日始臘’, 말미에는 ‘己亥臘月初九日絕筆’이라는 刊記가 기재되어 있음.

박부인전

1권 1책, 33.8cm×24.8cm, 도합 44장, 매면 12행 매행 28~32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책 표지에는 『박부인전』으로, 내지에는 『명월부인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시 책 말미에는 『朴夫人傳 單終』이라 기재되어 있음. 또 책 말미에 다음과 같은 필사 간기와 책주인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歲在甲寅陰八月十八日午正臘書

冊主李蓮菴

京城府光化門通四十二番地 舊號 京北部禮賓洞

이에 덧붙어 ‘래력(來歷 : 필자 注)’이라는 독자의 添文인 듯한 글이 실려 있다.

朴氏傳

1권 1책, 24.0cm×13.8cm, 도합 62장, 매면 8행에 25~27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책 말미에 다음과 같은 필사 간기와 필사자에 관한 기록이 있다.

己亥八月晦日 橋本蘇洲執筆

原本 丁酉十一月 二十八日 李秀才彩勝이라. 予全羅南道南平의 留宿할
시 그 冊을 어덧서 閑暇를 草堂의서 謄書하노라.

이에 덧붙여 轉寫者와 동일한 펠체로 필사된 ‘戲舞臺打令’이라는 短文이 실려 있다.

朴氏傳

1권 1책, 도합 64장, 매면 9행에 18~23자가 기재되어 있는 한글 펠사본. 펠체가 황잡하여 판독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임.

別春香傳

1권 1책, 21.0cm×11.7cm, 도합 96장, 매면 8행에 매행 22~24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펠사본. 말미에 다음과 같은 펠사 간기와 펠사자에 관한 기록들이 보인다.

丁酉十月初十日

京畿安城郡居士人 柳洋根 字 千機

大日本橋本蘇洲應需而書之

丁酉冬至月初七日校閱了

全羅南道南平望美壤

日本漫遊士橋本蘇洲

별주부전

1권 1책, 23.2cm×19.3cm, 도합 21장, 매면 25~28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펠사본. 「沈清傳」과 合本되어 있고 말미에 蘇本橋洲의 印章이 찍혀 있음.

蘇大聲傳

1권 1책, 27.7cm×18.3cm, 도합 16장 매면 15행 매행 27~28자씩 기재된 한글 坊刻本. 책 머리에 ‘宮岐藏書’라는 인장이 찍혀 있음.

宋婦人傳

1권 1책, 32.2cm×24.6cm, 도합 63장 매면 13행에 매행 21~26자씩 기재된 한글 펠사본. 펠체가 황잡하여 판독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 책 말미에는 “정사원월염일필서호노라글씨눈기괴춤목호오나칙설화보암죽호

고가 납후여번역 흐노라 (……) 칙류는 김부닌연기십구세 른연기요량하고 뷔
수미거의 탁흐노라”라는 기록이 보인다.

淑香傳

4권 4책, 27.2cm×21.1cm, 제 1권 44장, 제 2권 41장, 제 3권 54장,
제 4권 55장으로 도합 193장, 매면 9행에 매행 평균 31자 정도가 기재
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말미에 紹卷에 관한 編과 필사 간기 및 필
사자에 관한 기록등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제 1권 : 이칙율이권다미 라흐온즉칙 장수가만샵고보난니도지 루흐 고조 흠칙이쉬상
혈듯흐와이권을분권흐여소권의미엇쓰오니계초로보옵신축이월이십소일
전중유직일파는기록
- 제 2권 : 신축안월이십삼일유흐는일파는서 흐노라
- 제 3권 : 신축중흐전중니일파서
辛丑六月十二日典仲里一波書
- 제 4권 : 신축십일월효구일전중뉴흐는히온는서
철원이석수인전덕칙

沈清傳

1권 1책, 23.2cm×19.3cm, 도합 37장 매면 14행에 매행 25~31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말미에 필사 간기와 필사자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임.

- 丙申二月初十日
丁酉十月望日騰寫
全羅道南平鳳凰山望美樓下寓
蘇洲橋本彰美執筆
(이 작품에 이어서 앞에서 소개한 「별주부전」이 첨부되어 있음.)

玉丹春傳

1권 1책, 21.2cm×17.0cm, 도합 25장 매면 12행에 매행 23~24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말미에 필사 동기. 필사 간기 및 필사자에 관한
기록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庚子三月二十一日床頭挿瓶之紅挑含笑雨中垂楊眼緣如眠之際病中不○寂

寔寫之

全羅南平樓門下寓居

橋本蘇洲

本冊丙申年十二月初一日筆封

玉蘭奇緣

7권 7책, 29.8cm×18.5cm, 제 1권 91장, 제 2권 86장, 제 3권 82장, 제 4권 84장, 제 5권 86장, 제 6권 78장, 제 7권 97장으로 도합 603장. 매면 12행에 매행 21~25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玉蘭好緣」의 續編 으로 매권 內紙 卷頭에는 「송암선성 조여별전」이라는 제목이 「속난되연」 과 병기되어 있음. 매권 말미에 필사 간기와 필사자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제 1권 : 풍회연월인경수표교신소저필서

제 2권 : 풍회연월인경수표교신소저필서

제 3권 : 풍회연월인경수표교신소저필서

京水票橋 申小姐

제 4권 : 풍회연월인경수표교신소저필서

제 5권 : 풍회연월인경수표교신소저필서호다

제 6권 : 풍회연월인경수표교신소저필서호다

제 7권 : 풍회수년경수칠월이십팔일수교필서

월봉기

1권 1책, 도합 45장, 매면 10행에 매행 23~29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말미에 ‘갑자 십일월 념일 조직이라’, ‘책주에 남산덕’ 등의 기록이 보인다. 또 책 더리의 제목 하단에는 ‘金正順印’이라는 인장 이외에도 식별이 어려운 인장 두개가 낙관되어 있다.

劉生傳

1권 1책, 24.0cm×14.1cm, 도합 35장 한문 필사본. 매면 8행에 매행 20~21자씩 깨끗한 해서체로 기록되어 있음. 말미에 ‘壬戌春正初七日夜來之降雪滿山爲銀世界之朝’라는 필사 간기와 ‘橋本蘇洲’의 인장이 찍혀 있음.

「柳文成傳」의 異本系列로 볼 수 있음.

유소저전

1권 1책, 33.6cm×20.5cm, 도합 71장 매면 8행에 매행 18~21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필체가 황잡하여 판독이 매우 어려움. 「정을선전」의 異本.

윤지경전

1권 1책, 도합 70장 매면 7행에 매행 15~20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李大鳳傳

1권 1책, 27.6cm×18.9cm, 도합 76장 매면 10행에 매행 23~26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작품 말미에 다음과 같은 筆寫者의 自述과 필사 간기가 있다.

빅슈노안의 안력니회미 할꾼달여총명니불명호기로박귄곳도만히며

그릇센것도만사온니아무라도보시거든그덕로눌여보시암.

임술남월이십육일풀필니라

이진사전

작품 제목은 「이진사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은 「이태경전」임.

1권 1책, 22.4cm×19.0cm, 도합 43장, 매면 12행에 매행 22~24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작품 말미에 「橋本蘇洲彭美之印」의 낙관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보인다.

*庚子二月二十四日 일본국교본소쥬등서(日本國橋本蘇洲)

*본최은경린이월초육일석괴(石橋)강서방근서

*庚子去庚寅即十年也

위의 기록들로 보면, 일본인 橋本蘇洲가 이 작품을 筆寫한 연대는 庚子年 즉 1900년이라는 사실과 함께 교본이 사용한 원 텍스트는 庚寅年 즉 1890년에 石橋村의 강서방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임경업전

1권 1책, 27.8cm×21.5cm 도합 41장. 매면 12행에 매행 24~28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말미에 “세자경오년십이월초삼일에번역호

다” “경성부의선동일박수십오번지” 등의 기록이 보인다. ‘경성부’라는 기록으로 보면 ‘경오년’이라는 필사년대는 1930년일 것이다.

장경전

1권 1책, 23.8cm×18.3cm 도합 15장, 매면 15행에 매행 25~31자씩 기재된 한글 방각 복사본.

정두경전

1권 1책, 도합 31장, 매면 10행 매행 20~25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책 말미에 “제축팔월십일필서하나외조낙선티반니니물온노쇼하고눌녀보심잇삽”이라는 기록이 보임. 「정수경전」의 이본임.

정을선전

2권 2책, 28.5cm×19.cm, 상권은 32장, 매면 10행에 매행 25자 평균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권은 72장, 매면 10행 매행 16자 평균으로 기재되어 있음.

정을선전

1권 1책, 31.1cm×20.5cm, 도합 63장. 매면 9~10행에 매행 25~35자씩 조악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정사 솜월 초칠일(정사삼월초칠일)’이라는 필사 간기가 있음. 지질 등으로 보아 丁巳는 1917년에 해당될 듯함.

趙雄傳

2권 2책, 29.5cm×19.5cm, 상권 66장, 하권 101면으로 도합 213면. 매면 9행에 매행 24~28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각권 말미에 다음과 같은 필사 간기와 필사자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上卷：甲辰臘月日臘畢 冊主 朴德善

下卷：乙巳二月日 訂主 朴德善

지질 등으로 보아 김진파 을사는 각각 1904년과 1905년에 해당할 듯함.

中山望月傳

표지에는 「등산방월전」, 내지에는 「中山望月傳」 「一名菟領土傳」이라

기재되어 있는 「토끼전」 異本임. 1권 1책. 24.6cm×16.9cm, 도합 42장 매면 12행에 매행 25~28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책 말미에 詩歌 1수가 첨부되어 있고 이어서 필자 간기와 필사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칠월초구일과('필'의 오자일듯:필자)서

혹엇더본논리과에자나서만사오이늘여보게허음쇼서 金松汝

右一卷元釜山鎮金松汝所藏今茲明治二十八年二月十七日獲之于千石汝家而起筆寫十張翌未到其半而冊主遇求其返本予切請夜以續日終全記寫了于時十九日日將出於東山之期也於朝鮮舊館日本書堂天涯一寒生蘇洲橋本彰美誌

위 기록으로 보아 元冊主 金松汝가 本傳을 필사한 연대는 1892년 壬辰이 확실하고 이를 다시 蘇洲橋本이 明治 28년 즉 1895년에 轉寫하였음을 알 수 있음.

陳大邦傳

1권 1책. 22.4cm×19.0cm, 도합 33장, 매면 12행에 매행 21자~25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책 말미에 「庚子二月十二日」이란 필자 간기가 있고, 橋本蘇洲의 인장이 여러 군데 찍혀 있음. 본전 뒤에 「이진사전(이태경전)」이 합본되어 있음. 庚子年은 「이진사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00년에 해당됨.

陳大方傳

1권 1책, 22.3cm×13.8cm, 도합 77장. 매연 8행에 매행 20~22자씩 기재되어 있는 한글 필사본. 책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보인다.

* 戊戌四月初三日 在南平日東散人執筆

* 元本丙申正月二十七日 金士集書 亨노라

* 余是原他邦之土未詳韓國諺文雖然此書似多焉馬魯魚之誤謬今因原書騰書焉讀者大諒焉

蘇洲喬剛鄉

京城居金少菴謹書

‘蘇洲喬剛鄉’이란 人名 아래 橋本蘇洲의 印章이 찍혀 있음으로 보아

蘇洲喬剛鄉은 橋本蘇洲와 同一人이 分명함.

위에 보이는 干支 ‘丙申’과 ‘戊戌’은 각각 1896년과 1898년에 해당됨

昌蘭好緣

10권 10책, 29.7cm×18.5cm, 제1권 98장, 제2권 86장, 제3권 112장, 제4권 100장, 제5권 111장, 제6권 100장, 제7권 98장, 제8권 98장, 제9권 99장, 제10권 86장으로 도합 988장, 매면 11행에 매행 21~25자가 기재된 한글 필사본. 작품의 대미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초견은더 강만괴록하고한문별전이잇시니혹왈옥는괴연이따호엇시나축성남매조
종의입신경취허던수연과조부체여의괴화괴관이괴묘묘한설화잇시니못출보조허
난이눈이후록을차질지어다……

위의 引用文 내용으로 보아 이 작품의 繢篇이 「玉蘭奇緣」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위에 소개한 「玉蘭奇緣」의 筆體와 이 작품의 필체가同一할 뿐 아니라 두 작품의 紙質, 紙面에 기름을 먹여 놓은 책의 보판 방식과 보판 상태 등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작품에 필사 간기와 필사자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이 작품의 필사자 역시 「옥란기연」의 필사자인 ‘수표교 申小姐’가 분명하다.

춘향전

1권 1책, 30장 京板本의 복사본.

花門孝行錄 下

2권 2책 중 上卷은 落帙, 25.6cm×20.6cm, 도합 46장, 매면 16장에 매행 26~29자가 기재된 한글 필사 복사본.

華山重逢記

표지에는 「金相國傳」으로, 内紙에는 「화산중봉기」로 기재되어 있고 内紙 제목 아래 ‘舒川 鼎山’이라는 기록이 있다. 1권 1책, 23.4cm×21.1cm, 도합 55장, 매면 14행에 매행 23~27자가 기재된 한글 필사본.

이 작품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보인다.

*광서십오년기축수월난동덕서
 *書人墳墓在館川郡鼎山里酒店後甲坐
 嘉善大夫宋世奎氏
 *光緒十五年己丑四月日蘭洞宅書

화진전

2권 2책, 24.0cm×19.8cm, 上卷 70장 下卷 114면, 도합 254면, 상권은 매면 11행에 매행 평균 27자씩, 하권은 매면 10행에 매행 평균 27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작품 말미에 “을미십이월일평강진중면전일슈은 종서”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을미’는 1895년으로 추정됨. (「창선감의록」의 이본임)

興甫傳

1권 1책, 23.7cm×13.8cm, 도합 55장, 매면 8행에 매행 23~27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内間紙에 필사 간기와 책주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

癸丑六月二十日김형길칙을본을 받고 丁酉十一月初五日필집유하노라
 칙주 교본소주라

위 기록 중 丁酉年은 橋本蘇洲의 활동 연대로 보아 1897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癸丑年은 1853년에 해당될 듯하다.

興武王三韓傳

單券의 舊活字本. 編輯兼發行者는 金在鴻, 發賣處는 京城新明書林 1921년(大正十年)에 간행되었음. 도합 77장, 매면 14행에 매행 35자씩 인쇄되어 있음.

III. 「華山重逢記」一考

1. 예비적 고찰

일명 「金相國傳」(작품표지에는 「金相國傳」으로, 내지에는 「華山重逢記」로 기재되어 있음)인 본기는 현재 하바드대학교 燕京圖書館에 복사

본 1책이 소장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구 치명대학교 도서관에
秘藏되어 있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4×21.1cm, 도합 55엽의 단권으로, 每面 14行 每行 23~27자² 기
재되어 있어서 200자 원고지 약 200매 분에 허당되는 한글 필사본이다.

고려 충숙왕 시절 경상도 안동이 주 무대로 설정되어 있다. 작자와
제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품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록
이 보인다.

- (1) 광서십오년기축수월난동덕서
- (2) 書人墳墓在舒山郡鼎山里酒店後甲坐嘉善大夫宋世奎氏
- (3) 光緒十五年己丑四月蘭洞宅書

위 기록을 볼 때 이 필사본의 기록연도는 1889년(고종 26년)임이 확
인된다. 그런데 (1)의 ‘……난동덕서’와 (2)의 ‘書人……宋世奎’의 합
의를 어떻게 두는가가 문제다. 다음 몇 가지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1)의 난동덕과 (2)의 송세규씨를 동일인물의 작품 저자로 보는
경우

둘째 난동덕과 송세규를 동일인물의 필사자로 보는 경우

셋째 난동덕을 작자로, 송세규를 현전본의 전사자로 보는 경우

네째 송세규를 작자로, 난동덕을 현전본의 전사자로 보는 경우

다섯째 난동덕을 작자인 동시에 현전본의 필사자로 보는 경우

여섯째 송세규를 작자인 동시에 현전본의 필사자로 보는 경우

그런데, 다음 사실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1)의 난동덕은
한 여성의 택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2)의 가신마부 송세규와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그 가능성성이 일단 배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1) (2) (3)의 필체는 모두 다른데 (1)의 필체는 작품 본문
의 필체와 동일하다. 따라서 (2)와 (3)은 후대 독자들의 첨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섯째와 여섯째의 경우도 배제된다. 결국 세째, 네
째의 경우가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난동덕과 송세규 중 어느 쪽이 작
자이고 어느 쪽이 현전본의 전사자인가가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연구자는 송세규를 작자로 난동덕을 전사자로 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

은 몇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작품내용 중에는 실종된 주인공을 찾아 경상도에서 함경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편력하는 路程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자리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해박한 것으로 보아 작가는 여행 경험이 풍부한 남성임에 틀림없다.

둘째, 상충별렬인 가선대부가 한낱 언문소설 전사에나 종사했으리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상충지식인 그룹이 소설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조선 후기 문원의 경황을 보아서도 가선대부 송세규가 본전을 지었다는 생각에 큰 무리는 따르지 않는다.

세째, 송세규가 만일 현전본 전사자에 불과하다면 일개 언문소설 전사자의 분묘 소재를 규명해 두기까지 했을까. 이 또한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송세규라는 인물은 작품을 제작할 정도의 크고 깊은 학덕을 지녔던 존재로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본전은 이미 1889년 이전에 송세규에 의하여 제작되었다고 보고자하는 것이다.

2. 작품의 순차단락

- (1) 고려 충렬왕 시절 문하시중 김완국은 누대 잠영세족으로 문장과 재덕이 일세에 으뜸임.
- (2) 잔신인 감찰어사 이인철이 김완국을 포함 상소함에 상감은 김완국에게 제주 유배령을 내림.
- (3) 김완국, 아들 수증에게 가사를 당부하고 적소로 떠남.
- (4) 부인 진씨와 수증, 천리고혼이 된 김완국의 혼몽을 받고 이어 기세 소식을 들음.
- (5) 모자, 시증의 시신을 수습한 후 고향 안동으로 낙향.
- (6) 진부인, 삼년상을 치른 후 아들 수증을 진주 장지현의 딸과 성례 시킨 후 곧 이어 노환으로 기세.
- (7) 수증, 별호를 운림처사라 하고 벼슬에 뜻이 없어 산야 한객이 되니 세인이 그 높은 지조를 존중함.
- (8) 처사부부, 사십에 이르도록 자식 없음을 탄식하다가 때마침 일위 노승이 해인사 보수비를 동냥하매 천냥을 시주함.

- (9) 쳐사부부, 태을선군 제자로부터 해인사 부처의 지시로 의탁했다는 태몽을 얻은 후 비범한 옥동자를 출산. 이름을 선옥이라 함.
- (10) 선옥, 십세 전에 사서삼경 백가서를 무불통지하고, 십여세가 지나매 병서와 무예에 통달하여 국가 경륜의 큰 뜻을 품게됨.
- (11) 통관 이성일, 벼슬을 사양하고 경주로 낙향하여 천복을 누리나 늦도록 자식이 없음을 한탄.
- (12) 통관부부, 월궁 항아 제자의 의탁 현몽을 얻고 나서 빼어난 용모와 품격을 갖춘 여아를 출산. 이름을 농옥이라 함.
- (13) 김선옥과 이농옥, 지인지감이 있는 매파 춘임과 양가 시비 등의 주선으로 혼사를 이룸.
- (14) 김선옥, 부친의 지시에 따라 안국사라는 절에 입산수학.
- (15) 선옥, 야밤에 하산하여 이낭자와 밀회하다 부친에게 발각되어 내왕이 금지됨.
- (16) 선옥, 재차 귀가하였다가 이낭자의 침소 사창에 남자의 의관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 범민 끝에 정처없이 출향.
- (17) 김처사, 아들의 실종을 알고 대경 실색하여 아들을 찾는 사람에게 재산을 반분하겠다고 하자 칠촌 종질 형옥이 재산을 탐내어 탐색길에 오름.
- (18) 김형옥, 전국 방방곡곡을 수탐한 끝에 출향 3년만에 함경도 경흥 저자거리에서 선옥과 용모가 방불한 김홍룡이란 자를 발견.
- (19) 형옥, 김처사의 반분재산을 편취코자 하여 김홍룡을 假선옥으로 대치할 종계를 꾸밈.
- (20) 김처사, 피투성이 선옥의 현몽에 선옥이 죽은 것으로 단정하고 실성 통곡하는 차에 형옥이 가선옥을 데리고 귀환함.
- (21) 김처사부부는 선옥을 보자 기절하고, 모든 친척과 노복이 선옥을 반기는데 농옥 낭자는 첫눈에 가짜임을 간파하고 발언 변색하여 추상같이 호령함.
- (22) 형옥과 가선옥이 격분하고 쳐사부부와 일가친척 상하 노비 등이 농옥낭자를 실성한 사람으로 치부하매 농옥낭자는 문을 잠그고 두문불출, 화란을 방비함.
- (23) 이통관 부부, 소식을 듣고 달려와 간곡히 달래보았지만 딸의 서

뒷발같은 태도에 변함이 없어 필유묘매임을 짐작하고 헛되이 돌아감.

(24) 처사부부, 재삼 설득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으매 판가에 원정 상소함.

(25) 부사, 관계 제인(처사부부, 농옥낭자, 선옥, 형옥 등)을 모두 출두시켜 조사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선옥의 재취를 권유함.

(26) 처사, 사당에 고축한 후 머느리를 축출함.

(27) 이통판, 시가에서 쫓겨온 딸에게 자결을 강요하나 딸은 김씨 가문의 인륜과 자신의 정절보존을 내세우며 부모를 설득시킴.

(28) 처사, 아들의 재취지사를 본음에 진정하매 부사는 계통을 밟아 상감에게 단자를 올림.

(29) 상감, 한립 편수관 진연수를 팔도도어사에 제수하여 송사를 해결토록 하고 안동 김처사에게는 별도 분부를 기다리게 함.

(30) 진어사, 안동 김처사 집과 경주 이통판 집을 미행하여 형옥의 흥계를 짐작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삼년동안 편력한 끝에 관북 단천의 궁벽한 절간에서 가선옥과 방불한 한 화상을 발견하고 갖은 수단 방법을 써서 마침내 자신이 정선옥이라는 실토를 받아냄.

(31) 진어사, 경선옥을 데리고 안동 판아에 출도하여 처사부부, 자질 이씨와 통판부부 등 관계 제인을 빠짐없이 송정으로 출두시킨 후 대질 심문을 통하여 일대 옥사의 실상을 명쾌히 밝혀냄.

(32) 진어사, 빙설같은 절개를 지친 농옥 낭자를 양녀로 정하고, 낭자는 대연을 배설하여 어사를 극진히 모심.

(33) 어사, 상경하여 사전 전밀을 상감에게 낱낱이 복명 주달하매 상감, 홍통(가선옥)과 형옥을 능지처참케 하고 김수중부자를 엄형정배케 하고 이씨의 정렬을 포장하여 정려문을 세움.

(34) 김처사부자, 동궁원자의 탄생으로 정배에서 풀려 귀환하매 일가가 다시 단취케 됨.

(35) 김선옥, 京科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한립학사에 제수됨.

(36) 선옥, 부모를 모시고 출가, 상경하매 이 낭자는 진어사부부를 친부모같이 섬김.

(37) 상감, 김수중을 인견하시고 김완국 정배지사를 깊이 사과, 김수

증에게 간의 대부를 제수하고 김선옥을 병부상서로 승품시킴.

(38) 일본이 변경을 침범하매 선옥이 정남도원수로 출정해 되어 호부사랑 이인철을 종사로 정하고 진중에 대령케 함.

(39) 김원수, 왜군과 접전하여 대승을 거두고 왜장을 생포하였으나 일장 훈치끌에 물리보내고 대첩 회군함.

(40) 김원수, 명령에 불복한 이인철의 죄상을 일관제 상주하여 제주도에 위티안치 시킴.

(41) 장감, 김원수를 문하시중 평장사로 승품하매 부지 극치하고 자손이 영달함.

(42) 평장사부부, 80에 藉世.

3. 작품의 서사 구조

(가) 작품의 유형적 특징

이 작품은 영웅일대기의 구조적 원형성을 비교적 충실히 수용하면서 송사소설적 특징, 烈行錄적 특징, 가문소설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1) 영웅물의 구조적 원형성

영웅일대기의 구조적 원형은 다음 일련의 단락소에서 나타난다.

* 김선옥의 개체

* 김선옥의 출생(적강현동이 따름)

* 이농·옥의 개체

* 이농·옥의 출생(적강현동이 따름)

* 김선옥과 이농·옥의 성혼

* 김선옥의 출향·잠적(소속 집단에서의 분리)

* 이농·옥의 축출과 시련(소속집단에서의 분리)

* 김선옥과 이농·옥, 진어사의 활약으로 복귀재회

* 김선옥, 일본 칙략을 제압하고 立功

* 김선옥은 문하시중평장사에, 이농·옥은 정렬부인에 책봉되어 부귀를 누림

* 부부 80에 기세

위의 전출 내용으로 볼 때, 남녀주인공이 천상에서 적강하여 분리→

시련→회복의 과정을 겪는 구조적 원형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원형으로부터의 변이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사 기능으로서의 신성성, 신이성의 약화현상이 주목된다. 비록 남녀주인공이 천상에서 적강한다는 현몽과 신탁은 있지만 주인공의 위기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신이적 기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천상으로의 회복과정도 탈락되었다.

2) 송사소설적 특징

순차단락 (17)~(31)은 김선옥의 실종으로 빚어지는 염기적인 옥사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그 실상을 학실해 내는 송사소설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항복의 「柳淵傳」을 연상하게 되고, 진가쟁투담에서 는 「옹고집전」을 연상하게 된다.

3) 열행특적 특징

작품의 순차단락 (21)~(27)에서 여주인공 이동옥의 열행이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낭자는 假선옥을 친부모조차 정선옥으로 믿는 고립두원의 막다른 궁지에 몰려, 시가에서는 告廟逐出 당하고 친정에서는 자결을 강요받으면서까지 ‘빙설같은 결개’를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끝내 정렬부인에 책봉되기까지의 정절담이 중요한 작품 주지를 이루고 있다.

4) 가문소설적 특성

본전에서 가문의식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분명 가둬 아니를 상천이 부감호오시니 바라건데 공결지택을 입소와 김시의 인륜을 찾게 후오시고 지초에 신의 경결을 발키게 후소서 <25b>

이낭자가 판아에 나아가 부사에게 아뢰는 말인데, 여자의 정절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지만 정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댁 가문의 보존임을 위 인용문이 보여주고 있다. 실상 이 작품의 전체 구조가 한 가문에서 삼대에 걸쳐 일어나는, ‘정적에 의한 정치적 몰락→낙향→재기→복권→정적에 대한복수→가문의 부귀 영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검토한 바로는 이 작품이 영웅소설, 송사소설, 열행록, 가문소설의 제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어느 특정 유형으로서의 분류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이 비록 단권으

로 된 짧은 작품이지만 다양한 작품 주제와 제재를 큰 무리없이 소화했음을 보여준다고도 하겠고, 다른 시각에서는 고소설에 대한 단세포적인 유형분류가 얼마나 위엄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 작품의 서사기법

이 작품은 전개 기법상 몇 가지 석연치 않거나 미숙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주인공 김선옥의 인물형상화에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순차단락(8)~(10)을 통하여 주인공은 천상에서 적강한 존재일 뿐 아니라 십세전에 사서삼경과 백가서를 무불통지하고 국가경륜의 응흔한 뜻을 품은 타월한 영웅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16), (30) 등에서는 용렬하고 겁 많은 법부로 그려져 있다. (16)에서는 선옥이 이 낭자의 품행을 부정한 것으로 오해하고 강수에 투신 자살을 기도하다가 총용한 수세에 겁을 먹고 자결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38)~(40)의 왜적 정벌 장면에는 또 다시 걸맞지 않는 용맹과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인물 성격의 수미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작품 구성의 문제다. 순차단락 (1)~(37)은 그 자체로서 긴장감있고 완결된 작품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38)이후 부분이 첨가됨으로써 오히려 짜임새 있는 구성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38)~(40)에서 느닷없이 주인공 조부의 경적인 이인철을 등장시켜 복수하는 장면은 서사문법상 극히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작품 기법상의 몇가지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빠른 속도감과 드라마적 수법을 적절히 구사하여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가령, 주인공의 조부인 김완국 세대의 이야기는 단락 (1)~(6)까지에서 그리고 부친 김수중 세대의 이야기는 (7)~(12)까지에서, 빠른 속도와 축약 수법으로 처리한 후, (13)부터 주인공 세대의 이야기는 이완과 긴 축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매우 생생한 장면 제시 수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진어사가 함경도 단천에서 가선옥과 흡사한 김화상을 만나 자신이 정선옥이라는 실토를 얻기까지의 단락 (30)은 우선 지면을 31a에서 35a까지 다섯 장(10면)을 할애하고 있고(작품 전 분량의 약 10%에 해당됨), 상대방의 내면 심리의 변화를 읽으면서 무려 여덟 단계에 걸쳐 차백을 유도한 끝에 마침내 성공하는데, 선명한 장면제시 수법은 놀랍기 그지없다.

또 단락 (31)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은 두가지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지켜보면서 궁금증을 증폭시켜 올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는 주인공 선옥의 출향 이유, 즉 절에서 두번째로 하산했을 때, 이낭자 침소의 사창에 비쳤던 남자 그림자(단락 16)의 정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낭자가 가선옥을 보는 순간 첫눈에 가짜임을 간파할 수 있었던 증표에 관한 궁금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시종 시치미를 떼어오던 작자가 단락 (31)에서 털어놓은 해답은 독자로 하여금 실로 기상천외의 놀라움과 혀탈감을 한꺼번에 맛보게 한다. 즉, 이 낭자의 침소 사창에 비쳤던 남자 그림자는 이 낭자가 부군의 도복을 짓다가 수품과 길이 장단을 채어불 양으로 시비 옥란에게 그 도복을 입혔고, 이에 옥란은 장난끼가 동하여 벽에 걸린 선옥의 것을 썼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하찮은 일로 하여 김씨 문중이 수년 동안 풍지박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작품구조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를 연상케하는 생생하고도 절묘한 사실주의적 기법이라 하겠다.

III. 결 여

지금까지, 새로 발굴된 고소설 「華山重逢記」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해보았다. 영웅일대기의 원형구조를 비교적 온전히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서사기능으로서의 신성성, 신이성의 두드러진 퇴색현상은 정신사적 측면에서 하나의 이해기적 특징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이 작품이 제재론적 측면에서 「유연전」, 「옹고집전」 등에서 볼 수 있는 진가쟁투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민담적 모티프와 문학관습을 작품기저에 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천착이 요청되는 것이다.

IV. 「宋婦人傳」一考

1. 예비적 고찰

이 작품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一種이 소장되어 있고, 근자에는

金光淳 교수에 위하여 학계에 소개된 바도 있다.⁵⁾

먼저 書誌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권 1책, 32.2×42.6cm, 도합 63장, 매연 13행에 매행 평균 23자씩 기재된 한글 필사본. 筆體는 粗惡한 間巷體이고, 講字·脫字 및 문장 탈락 부분이 군데군데 散在해 있어서 내용 판독이 짜증스러운 실정이다. 작품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정사 원월 열의 필시하노라. 글씨는 기괴 춥득호오나 ? 설교 보안주호고
가죽호여 뇌익호잇노라. 이 책 글씨는 불것 업소오는 우리 호하갓치후덕 어디
신 우리 친당 부도는과 구고님과 구고님 당회동신 빠라 가리 몇백년나르도 두
고 불디어다. 보자나니 비소 말고 놀녀 김죽호심 너도 다리으며 척류는 일부닌
십구세를 인기 요○하고 빅소 미거 이탁호노라.⁶⁾ <페어트리 및 下線은 필자,
○은 판독이 난해한 글자>

위 인용문에 보이는 필사년 간기인 ‘정사’(丁巳)년은, 작품을 표기함에 있어 ‘하노라’體 語尾를 사용한 점, ‘하다’動詞의 ‘하’字를 ‘하’와 ‘호’로 혼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개화기인 1917년 丁酉年 으로 볼이 옳을 듯하고, 또 ‘척류는 일부닌 십구세’(冊主는 金夫人 十九歲 : 筵者)라는 加線부분으로 보아 필사자는 19세의 김씨 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高大本은 도합 53장, 매연 12행에 매행 24장 평균으로 기재되어 있는 間巷體 한글 필사본인데, 필체가 조악하고 講字·脫字 및 누락 부분이 많은 점은 哈佛本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 역시 내용 판독이 신히 난삽하다. 이야기 내용은 兩本이 비슷하기 때문에⁷⁾ 兩本을 校合하면서 판독이 어려운 부분을 상호 보완하여 읽으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크다. 그런데, 고대본은 53장 이후의 내용이 탈락된 落張本이다. 하바드본과 對比해 볼 결과 고대본 마지막 장인 53b의 내용이 헌-바드본 50b 부분에 해당되고 있어서 약 12~13장 분량의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⁸⁾

5) 金光淳, “속부인전 構造分析”, 韓國古小說史와 論(서울, 서문사, 1990).

6) 哈佛本 63b.

7) 講字·脫字 및 문장 탈락 부분을 제외한 작품내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두 異本의 母本은同一本이었던 것 같다.

8) 本稿 Ⅱ章의 ‘作品의 順段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本傳의 순차구조

한편, 김광순본의 경우는 미처 내용을 살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김교수가 밝혀 놓은 작품의 梗概로 보건대 하바드본과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그리면, 하바드본을 중심으로 하고 高大本을 참고하면서 이 작품의 順次構造와 그 서사구조의 내면적 특징, 작품에 내재하는 세계관 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作品의 順次構造

(1) 大明 흥치년간.

소주 王창영, 仙風道骨에 李杜의 문장

(2) 王창영, 應科次 상경 도중 동관 당에서 宋生을 만나 의기 투합. 함께 상경.

(3) 兩人 응파, 王창영은 장원, 송생은 이등참방, 三日遊街 후 함께 귀향.

(4) 귀향도중 송진사집 蒼頭가 得女 소식을, 그리고 王진사집 家童이 득남 소식을 각각 전함에 兩人이 자녀의 혼사를 약속하고 은지환과 장도를 信物로 교환.

(5) 송진사, 동관 귀환, 女兒 특출, 이름을 경패라 함. 부인 심씨 生男, 남패라 명명.

(6) 경패 남매 14세와 10세 때 부친 송진사 죽음, 심씨 소주 양진사역에 通計.

(7) 王진사, 귀향하여 부인 오씨와 아들 상봉, 한춘이라 명명, 王한춘 5세에 諸子百家를 無不通知.

(8) 王한춘, 과거차 上京, 도중에 父命으로 동관 송진사 딱 십방, 家勢가 高樓巨閣이긴 하나, 外無主張之家로 冷落蕭凋, 王한춘 萬端懷包, 夜半에 定婚女 경패소저 別堂에 越墻入室, 信物과 定婚을 재삼 확인·약속하고 작별.

(9) 심부인, 한춘과 惜別 후 發病 사망. 심부인 동생 심천수 性情不良, 宋家재산 갈취홍계, 심천수 누이 장례 후 宋門家事 주장. 경패 남

는 도합 44단락으로 분절되는데 高大本의 경우는 단락 (33)이후부터 끝까지 도합 12개 단락분이 누락되어 있다.

매를 흥계로써 집에 데려감.

(10) 동관 인근 원산村의 조중인, 형세유족, 오십세에 喪妻. 이웃 巫女를 통하여 경쾌를 再娶코자 千兩 金帛으로 심천수와 홍정.

(11) 심천수, 무녀의 중매 쾌락. 부인 유씨는 맹렬히 반대. 경쾌 남매, 의숙부부의 다툼을 엿들고 사태 짐작.

(12) (각설), 왕한춘 장원급제, 황제가 보필을 강부하여 湖南繡衣를 제수(동관이 호남 제일길목).

(13) 왕어사, 폐의파립으로 동관당도, 길가 주막에 유숙, 주인 유가에게 송진사집 소식을 염탐, 심천수 하수인인 유가는 송진사 부부 죽은 후 경쾌 남매가 야밤 도주하여 소식 돈절이라 거짓 전함. 어사, 송진사 부부 산소를 참배, 훤작.

(14) 경쾌, 혼일이 임박하자 자결 결심, 동생 남매에게 유언을 남기고 울부짖다 기절, 비몽사몽 중 부모 산소에 횡통이 서린 꿈을 꿨.

(15) 경쾌남매, 묘소에 당도, 폐의파립의 왕어사와 눈물의 상봉, 왕어사, 심천수 흥계에 격분, 신분을 밝히고 혼일에 재회할 것을 약속.

(16) 婚日, 성대한 잔치, 신랑(조중인) 당도하자 암행어사 출도로 아수라장, 죄인들 징치. 어사 부부, 새로 잔치배설, 초례거행, 初夜에 송부인 간청으로 왕어사가 심천수등 죄수 방면.

(17) 송부인 남매, 왕어사 주선으로 소주 시액에 득달, 시부모 현알 출천효성으로 孝奉舅姑.

(18) 왕어사 湖南善治, 칭송자자, 수개월 후에 상경, 천자 배알하매 천자, 병부시랑을 채수.

(19) 조중인, 徵天舍恩, 무서운 보복흥계를 꾸밈. 무녀와 결탁, 송부인 방에 송부인이 장태두와 通姦한 淫書를 꾸며 투입.

(20) 왕진사, 淫書를 보고 경악 격분, 황성 왕어사에게 서신(조중인 농간으로 주막에서 편지, 차단, 왕어사 담신위조), 왕진사 滿朔의 송부인을 축출

(21) 송부인 남매, 야밤 출행, 진퇴유곡, 신고 끝에 강가에 도달, 無主隻船에 올라 이튿날 한 곳에 도당, 남매, 결식하던 마을로 찾아감.

(22) 송부인, 강가 갈밭에서 解產 후 失神. 奇夢을 얻은 옆마을(화림동) 우과부에 의해 母子구출되어 우과부집에 의탁, 바느질 품을 팔며

安身.

- (23) 남매, 밥을 얻어 돌아와 보니 송부인 종적 묘연, 유혈이 낭자함에 누이가 피살된 것으로 단정. 정처없는 유랑 끝에 분강땅 백초관을 만나 養子로 의탁.
- (24) 송부인, 이웃 양판관 집 女婚 잔치에 갔다가 신랑 남매와 극적 상봉(남매, 생질을 갈용이라 명명).
- (25) 남매, 장인 양판관 주선으로 송부인 모자를 테리고 분강으로 떠남.
- (26) 송부인 남매, 분강해 도중 육탄이라는 險地에서 남매가 落馬, 深潭에 떨어져 실종됨.
- (27) 송부인, 갈용을 업고 산속을 방황하다 초막을 발견. 惡疾을 앓고 있는 이곳 호장의 딸을 만나 餓渴을 면함. 草幕옆 토굴에서 거처함.
- (28) 송부인, 약초를 採集하여 처녀의 惡疾을 쾌차케 함. 백골난망의 호장부부, 송부인 모자를 자기집 別堂으로 모셔 극진히 받듦.
- (29) 갈용, 자라매 기풀이 장대, 천재숙성, 문장이 뛰어나고 여력이 절륜하여 同類를 지휘, 군림.
- (30) 갈용, 이웃의 폐악한 초군을 구타, 초군이 못에 투신 자살함에 살인죄에 뮤임.
- (31) 재판정에서 계양태수와 운천태수 간에 살인죄 여부에 대하여 의견대립. 황상에게 각자 장계를 올립에 황상, 왕한춘을 위로사로 별송, 사태를 수습토록함(왕한춘, 십여년동안 근친도 못가고 酒幕主人 농간으로 서신도 받지 못해 집안 변고와 갈용 탄생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
- (32) 왕시랑, 죄수 갈용을 문초하다가 송부인과 극적인 상봉, 송부인의 진술로 집안의 흥칙한 변고 始末을 알게됨.
- (33) 이튿날, 왕시랑 어린 죄인 갈용의 무죄함을 황상께 상주하고 放免. 송부인과 갈용을 테리고 소주 고향으로 감.
- (34) 왕시랑, 고향당도, 부모배알, 송부인의 억울한 사정 자초지종을 주달함에 왕진사 부부 대경 참괴. 머느리와 손자 영입.
- (35) 왕시랑, 편지 하수인을 국문하여 흥인 조종인, 심천수, 무녀, 장매 두 등의 죄상을 책설, 송부인 간청으로 심천수 구제, 여타 죄인 일체는 斬殺.

(36) 왕사랑이 상경, 황제를 배알하매 황제 서당에게 대사마 대장군을 제수.

(37) 북녘 오랑캐 모반함에 왕한춘, 대사마 대원수 정통 도원수로 출정. 오랑캐(말갈) 선봉장과 쟁투하다 위급지경에 빠짐.

(38) (각설) 송남파, 분강행 도중 물에 빠져 바다에 이르러 정신 수습. 水府의 珠宮靈閣에 인도됨. 용왕의 요청으로 풍녀와 결혼.

(39) 송남파, 人間界 귀향을 청원. 용왕이 때를 기다리라며 一卷兵書를 주며 남파, 풍운조화와 벽력신술을 無不通知케 되.

(40) 십년 후 용녀 득병 사망. 용왕, 남파에게 오흥마, 용련갑, 용신검을 주며 인간계에 나가 사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 함.

(41) 남파, 인간계 귀환. 單騎匹馬로 전장에 뛰어들어 사경에 빠진 妹兄 왕한춘을 구출, 국적 재회.

(42) 왕한춘과 송남파, 개선 귀환. 황제의 극진한 환대와 동공행상(왕한춘, 금자관록 내부 예부상서 겸 초국공, 송남파, 은자-양복대보 대장군 대사마 겸 위국공).

(43) 兩人, 말미를 얻어 錦衣還鄉, 一家 漣眷이 團聚.

(44) 恩人們(양관관, 우파부, 호장부녀, 심천수 부인 유씨 등)에게 골고루 사은하고 치하함.

3. 작품의 구조적 특징과 세계관

(가) 작품 主旨와 구성 삽화

위에 摘示한, 44단락으로 구성된 작품의 서사적 순차구조를 유의해 볼 때, 우리는 이 작품의 구조적 기본 골격이 여주인공 송경파 부인의 혼사장애와 그 극복담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살피면 간파하게 된다 즉 출생과 동시에 양가 부모에 의해 擇定된 배필 왕한춘과의 혼사를 성취하기까지 송부인이 겪는 파란만장한 시련 고형담이 이 작품의 핵심적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 주제를 하나와 완성된 서사적 구조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은 몇 가지 흥미 있는 구성 낙화를 원용하고 있다.

먼저 財產 탈취담에 관해서다. 단락소 (9)~(11)에서 보면, 여주인공

송경패가 어린 나이에 兩親具沒로 天涯孤兒가 되어 外叔 심천수에게 의탁되는데, 성정이 불량한 심천수는 宋家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갖은 흥계를 구미는 한편 경패를 인근 마을의 조중인이라는 늙고 돈 많은 홀아비에게 천냥 금액을 받고 팔아넘긴다.

이러한 재산탈취담이 고소설의 서사진행과정에서 작품 갈등으로 등장하는 양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落泉登雲」에서 나타나는 재산탈취담과 이 작품의 경우가 유사하다. 「낙천등운」의 경우, 여주 인공 동소저는 부친 동전채이 政敵인 巖崇 일당의 모함으로 削奪官職되어 적소로 유배되어 버리자 그 삼촌 동전채에게 의탁되는데, 성정이 불량한 동전채가 재산을 갈취하고 동소저를 媚家의 포주에게 팔아넘기게 되어 파란만장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암행어사 삽화가 주목된다. 즉 단락 (12)~(16)에서, 송경패가 그 외숙 심천수의 흥계에 말려 조중인의 재취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湖南繡衣를 제수받은 약혼자 왕한준은 호남 제일 김목인 동관에 당도하여 주막에 유숙하며 송진사 집 소식을 염탐한 후 경패 남매를 재회하고, 혼사 당일 성대한 잔치마당에 어사출도 하여 신부 경패를 극적으로 구출한 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신랑이 되어 혼사를 이룬다.

그리구로 혼일이 닷치니 심천수는 잔치을 비설하고 좌우로 청빈호며 조중인은 빅슈을 헛날리고 보교의 놈피 안저 의기양양호야 우덜우딜 드려오이 귀경군이 만산편야호야 기리 막하는지라 잇썩의 슈의, 둥방과 역졸을 치별 단속호야 종ヶ을 아조 습기고 안밧그로 드나드며 음식을 투경호니 심천수난 시손 연접이 분쥬불관호여 오히려 접인 규관은 두별지라 조동인이 닷치며 초례을 지축호니 슈의 혼번 눈치호미 어더셔 혼소리 벽역갓치 올리며 암횡어수 출도을 외치니 천지 닌동호며 동호니 쫄난지라 심천수는 상흔실빅호야 담을 넘어 도망호다가 석구로 쪘려져 혼 팔을 쪄지르고 조동인은 황급호여 마구로 드려가다가 말께 쳐이여 다리를 쪄지이고 그 남은 귀경수니 일시의 하여디니 슈의 좌경 후의 심천수와 조동인을 결박호여 잡아드려 결곤 오십도의 본관 뇌슈호고 다시 분부호여 원순 무여와 동관 경호을 잡아드려 결곤 삼십도호야 남경옥의 이슈호이 좌우 귀경꾼이 뉘 아니 송쾌이 너기리요 다음 시비을 명호여 월 유부인께 전갈하여 월 듯조오니 오늘 이덕이 더스 디너려호와 잔치을 비설호였다 호오니

이런 길일을 엊디 허파흐리요 실냥이 여기 왓소오니 효태을 츠려 들타면 비록 역여 것츠오나 육예랄 갓초와 신부랄 맛고자 하나이다 유씨 황급히여 이령시 힁호니 송소제 결치와 왕어수의 풍경이 금고의 쳐움일네라⁹⁾

조중인의 잔칫 날 왕한준이 암행으로 어사출도하여 송소저를 극적으로 구출하고 즉석에서 혼례를 치루는 위의 대목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한 장면묘사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 대목은 「춘향전」에서의 저 유명한 暗行御史 出道 장면을 再現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는 「옥단춘전」이나 앞서 살펴본 「華山重逢記」에서의 암행어사담과도 맞물리면서 조선 후기 소설에서 암행어사가 차지하는 서사구조 진행요 소로서의 매우 높은 비중을 짐작케 해준다.

세번째로 淫行誣告譚에 대해서 살펴보자. 왕한준의 御使出道로 위기를 모면하고 혼사를 이룬 송부인이 다시 비운을 맞게 되는 것은 敵黨들의 음행무고 때문이다. 즉 극적으로 혼사를 이룬 송부인은 남편 왕어사의 주선으로 동생 남패를 데리고 소주의 시댁으로 찾아가서 孝奉舅姑하여 일단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단락 (19)~(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부인을 넘보다가 패가망신한 적당인 조종인이 재차 무녀와 결탁하여, 송부인이 장패두라는 전달과 通姦하여 淫行을 저지르는 사연의 淫書를 송부인 방에 투입, 시부 왕진사의 격분을 사게 하매 왕진사는 끝내 만삭이 된 송부인을 축출하게 되고 송부인은 다시 처참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고소설에서 여주 인공이 겪는 고행의 원인으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큰 것이 이 淫行誣告譚임을 우리는 이미 「謝氏南征記」·「낙천동운」·「泉水石」·「明珠寶月聘」·「河陳兩門錄」 등 대부분의 가정소설 및 가문소설을 통하여 널리 알고 있는 바인데, 이 소설에서도 이러한 친숙한 구성삽화를 원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 무용담을 살펴보자. 이미 살펴 지적해 둔 일이지만, 이 작품에서 시종일관하는 중심적인 작품 테마는 婚事障礙主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전개과정에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흥미있는 읽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套式的인 전쟁 무용담을 결들이기를 잊지 않고 있다. 단락 (25)~(26)에서 송부인을 데리고 분강 땅으로 가던 송부인

9) 哈佛本 25a-26a.

의 남동생 남패가 도중에 험한 길에서 落馬하여 벼랑 밑의 깊은 뜻에 빠져 순식간에 실종이 되는데, 그 후 한동안 남패는 작품 속에서 자취를 감춘 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단락 (37)에서 송부인의 남편 왕한춘이 때마침 변방을 침공한 북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하여 대사마 대원수 경북 도원수가 되어 출정하여 오랑캐의 선봉장과 싸우다가 매우 위급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한동안 자취를 감추고 있던 송남패의 기이한 전쟁무용담이 펼쳐진다.¹⁰⁾ 즉 분강행 도중에 落馬溺水한 송남패가 바다에 이르러 정신을 수습해보니 水府 용궁의 珠宮貝闕에 인도되어 있는데, 용왕의 간청으로 용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후 남패는 용왕에게 인간계로의 귀환을 청원하지만, 용왕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며 일권 병서를 주고 무술 연마에 정진할 것을 지교하매 남패는 풍운조화지술과 벽력 신술을 무불통지케 된다. 그러구려 십년이 지나자 용녀가 병을 얻어 죽게 되고, 용왕은 비로소 남패에게 오룡마·용린갑·용신검을 주며 급히 인간계로 나아가 사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 한다. 이에 인간계로 귀환한 남패는 單騎匹馬로 전장에 뛰어들어 사경에 빠진 매형 왕한춘을 구출하고 극적으로 재회한다. 왕한춘과 송남패가 개선 귀환하자 황제는 이들을 극진히 환대하며 왕한춘을 ‘금자광록대부 예부 상서 겸 초국공’에 봉하고 송남패를 ‘은자광록대부 대장군 대사마겸 위국공’에 봉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전쟁무용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물에 의하여 연행되고 있으며, 작품 구성상 별로 구조적인 유기성이나 긴밀성을 띠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이한 용궁담과 곁들여서 당시 독자층의 흥미를 둔우려는 작가적 배려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¹⁾

지금까지 이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주로 작품의 중심 테마와 구성삽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거니와, 한 여인의 혼사장애주지를 작품의 중심 테마로 삼으면서 전개되는, 별로 길지도 않고 복잡할 것도 없는 이 작품 속에는 그러나 조선 후기 당시의 독자층이 흥미를 느끼고 선호하던 친숙한 삽화군이 망라되고 있다는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

10) 단락 (38)에서 (42)까지 참조할 것

11)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의된다.

었다.

(나) 작품의 세계관적 특징

반복되지만 이 작품의 핵심적인 작품 주제는 여주인공 송경패가 겪고 극복하는 혼사·장애·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송부인이 겪는 혼사·시련과 그 극복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작품에 내재하는 세계관과 미학의 틀을 살펴 보기로 한다.

송부인이 겪는 시련과 고행은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1차 : 속부 십천수의 재산탐취욕에서 빚어지는 조종인과의 강제혼(단락 (9)~(11))

2차 : 조종인이 조작한 음행 무고로 인한 시가에서의 축출(단락 (19)~(21))

3차 : 문강행 도중에 남동생 송남패의 溺水失蹤(단락 (26)~(27))

4차 : 아들 갈용이 살인죄에 연루되어 투옥됨(단락 (30))

그런데, 이 네 차례의 시련을 해결 또는 극복하려는 과정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차 위기 즉 조종인과의 강제혼 위기 시에는, 혼일이 임박하자 자결을 결심한 경패가 동생 남패에게 유언을 남기고 울부짖다 기절하는데, 비몽사몽 중에 부모 산소에 황룡이 서린 꿈을 꾼다. 이에 산소를 찾아간 경패 남패는 때마침 폐의파림으로 성묘 차 찾아온 남편 왕한춘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는데, 십천수 일당의 흥계를 알게 된 왕한춘이 조종인의 잔칫날 수의어사로 출도하여 상황의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2차 위기 즉, 조종인 일당이 조작한 음행 누명을 덮어쓰고 媳家에서 축출되었을 때를 살펴보자. 만삭의 몸으로 동생 남패를 데리고 야반출행을 당한 송부인은 천신만고 끝에 강가에 도달하여 주인 없는 배를 타고 흘러 가다가 날이 밝자 갈대숲이 우거진 한 곳에 도달한다. 동생 남패가 마을로 밤 구걸을 나간 사이에 송부인은 강가 갈밭에서 옥동자를 분만한 후 기절해버리는데, 때마침 奇夢을 염은 이웃마을 우과부에 의해 구출되어 그 집에 머물게 된다. 한편 밤을 엎어 돌아온 남패는 갈밭에 유혈만 낭자한 채 누이 송부인의 실종된 것을 보고 필시 악당에게 피살된 것으로 단정하고 강을 따라 떠돌던 끝에 분강이라는 곳에서 백초관을 만나 그 양자로 의탁하게 된다. 이때 송부인은 이웃

양관관 집 딸의 혼사에 초대되어 갔다가 신랑이 몽매에도 그리던 동생 남매임을 알게 되어 남매 간의 극적 상봉이 이루어지고, 동생을 따라 분강의 백초관 집으로 향하게 되어 일단은 어려운 고비가 해결된다.¹²⁾

다음은 3차 위기의 극복과정을 살펴보자. 분강의 백초관 집을 찾아가던 송부인은 뜻밖에 동생이 벼랑에서 落馬溺水하여 실종되어 버리자 아들 갈용을 업고 산 속을 헤매며 죽을 고생을 하던 끝에 한 초막을 찾게 되는데, 이 초막에서 물풀 병을 앓으며 식구들과 격리되어 혼자 살고 있는 이곳 호장의 딸을 만나 기갈을 면한다. 송부인은 초막 옆 토굴에 기거하면서 인근 산 속에서 약초를 채집하다가 온당초라는 신기한 약초를 얻어 호장 딸의 惡疾을 고치게 되니 호장 부부가 자기집 별당으로 모서 극진히 환대한다.¹³⁾

마지막으로 4차 위기의 해소과정을 살펴보자. 송부인은 호장 딸의 병을 치유해 줌으로써 안정을 되찾고 십여 년 동안을 무사히 지나지만, 그동안 기골이 장대하고, 여력이 절륜한 현현장부로 자란 아들 갈용이 하루는 이웃의 폐악한 초군을 구타하고, 초군이 횃김에 못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살인죄로 옥에 갇히자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그런데, 갈용의 진상을 가려내지 못한 고을 재판관들이 황상에게 장계를 올리자 황상은 병부시랑 왕한춘을 위로사로 내려보내 사태를 수습도록 하는데, 이때 왕한춘은 호남 수의어사로 선치한 후 상경하여 십여년동안 고향에 근친도 가지 못하고, 따라서 송부인의 끔찍한 변고와 아들 갈용의 탄생 사실조차 모르는 터였다. 현지에 도착하여 죄수를 문초하던 왕시랑은 천만 뜻밖에 송부인과 극적인 상봉을 함으로써 죄수가 자신의 아들 갈용이라는 사실과 집안의 흥착한 변고 시말을 알게 되어, 드디어 갈용은 무죄방면되고 송부인은 십여년 동안 감당해야 했던 통한의 누명을 벗게 되어 영화로운 귀향이 이루어진다.

이상으로 송부인이 네번에 걸쳐 겪게되는 위기상황과 그 극복양상을 살펴보았거니와,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주목되는 점은 네번에 걸친 위기 극복과정에서 초월주의적 세계관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꿈을 통하여 사태를 미리 알려주는,

12) 단락 (21)-(25)를 참조할 것

13) 단락 (26)-(28)을 참조할 것

즉 ‘現夢豫徵’이나타나기도 하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용궁’이라는 초월적인 聖所空間이 설정되어 물에 빠진 송남매라는 등장인물(비록 조연급 존재이긴 하지만)을 보호해 주는 장치로 원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사진행에서 볼 때 송부인이 겪는 1차에서 4차 까지의 위기가 한결같이 암행어사 출도나 영뚱한 약초의 효험과 같은 현실주의적 문맥을 통하여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작품세계의 막후에서 작품의 서사적 진행을 뛰어보면서 마치 인형극을 조종하듯이 작품의 從頭至尾를 마음대로 즈종하는 이른바 幕後人物¹⁴⁾로서의 도사나 신선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 하듯이 이 작품에서 신비로운 초월주의적 세계관이 크게 약화되어 있음을 분명한 일인데, 이는 정신사적 축면에서 볼 때 신성문화에서 세속문화로 이행하는 이행기적 특징으로서 주목될 만하다.

4. 결 어

지금까지 「송부인전」의 서지상황, 순차구조, 구조적 특징과 세계관 등을 살펴 보면, 이 작품이 우리의 전래적인 문학관습으로서 익숙해진 풍부한 삽화를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친밀감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남녀 주인공의 결연과정이나 위기극 복파정에서 되도록이면 기이한 도술적 장치를 제거하고 현실적 문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가적 노력의 일단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神이라는 초월적 존재로부터 연역되는 것으로 믿고 있던 지상세계 인간의 삶의 원리, 즉 초월주의적 세계관이나 존재론을 극복해 가는 정신사적 변이양상으로 풀이될 수 있음도 이미 고지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작품의 구성이라는 축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神이라는 초월적 장치를 제거하고 현세적 현실적인 문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설픈 수법 그 자체가 연속된 新派調의 우발적인 업적 스펙트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외면해버릴 수 없다. 이는 이행기적 특징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팬자가 기회있을 때마

14) 고소설의 ‘막후인물’에 관해서는 이미 정병욱 교수에 의해서 관찰된 바 있다(정병욱, “조선조 말기소설의 유형적 특질”, 「한국 고전의 재인식」, 호성사, 1979).

다 지적해 온 바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 설정되어 있는 龍宮의 세계는 天上性 극복이라는 작품 전개의 기본 방향과 정면으로 상충되어 구성상의 위화감을 크게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이행기적 작품의 한계라는 문맥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